

완도군, 농어촌 생활여건 개조사업 원할



완도군은 노화 소당·도청지구 등 총 3개 지구에 총 사업비 66억 7천 2백만 원(국비 4,927, 지방비 1,745)을 투입하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선정된 노화 소당·도청 지구는 23억 3천 4백만 원을 투입하여 위험 지역 가로등 및 CCTV 설치를 완료하였다.

현재는 집중호우를 대비한 하수도 정비 및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

3개 지구에 총 사업비 66억 7천 2백만 원 투입 인프라 사업·휴먼 케어 등 마을 특성 맞춰 진행

업 등을 추진 중이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 금일 일정지구(21억 2천 3백만 원), 금당 옥동·봉동지구(22억 1천 5백만 원)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추진 중이다.

새뜰마을 사업은 사업비의 70%가 국비로 지원되며, 생활여건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은 2015년부터 매년 1개소

이상이 선정되고 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 안길 정비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인프라 사업,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담장 정비 등 주택 정비사업, ▲노인 돌봄 서비스 및 안전한 통학길 만들기 등 휴먼 케어 등 마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업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여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기자



강진군,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서비스 마인드와 고객만족도 향상 방법' 주제 특강 진행

강진군은 지난 10월 28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공무원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최소인원만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은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TV 시청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군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대민 서비스 기대 욕구가 높아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민원 응대 수준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CS경영연구소 박우진 강사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서비스 마인드와 고객만족도 향상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의 교육은 전화응대를 잘하는 사람

의 특징,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응대요령과 소통방법, 친절하게 민원을 대처하는 능력함양 등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교육하며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진군 관계자는 "친절은 공무원으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육은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갖고 민원인과 소통하는 표현을 배우며 민원 응대 자세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의 업무에서 친절행정을 펼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주)다복과 '전북유통 활성화' 협약

해남전북 유통망 구축·판매확대 상생협력기로

해남군은 대형 전북유통업체인 ㈜다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산물 유통에 상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연 매출 1,000억원대로 전국 최상위 전북유통업체인 ㈜다복은 최근 해남군 북평면에 전북 가공 유통센터를 설립하고 활전복과 전북 가공품 등 유통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10월30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오정목 ㈜다복 총괄대표 등이 참석해 해남전복의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과 판매확대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해남전복의 적정가격 매입과 홍보·판매, 해남군민 우선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고품질 전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명현관 군수는 "전국적으로 전복 양식 면적이 늘면서 가격 불안정 등 전복양식 어가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남군의 고품질 전복 판매 유통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어가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남은 연간 1,500톤, 전국 생산량의 8%(201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전복 주산지로서 해남전복은 영양이 풍부한 갯벌 바다에서 자라기 때문에 벨 전복이라고 불리고 있다. 맛과 영양성분이 일반 양식 전복에 비해 훨씬 풍부해 2014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지리적표시 19호로 등록됐다.

기동취재본부



'새단장' 장흥청소년수련원, 운영 재개 국비 12억원 들여 대강당 신축...다목적관·내·부 정비

장흥군청소년수련원(대표 문승래)이 새단장을 마치고 11월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장흥군은 지난해 국비예산 12억원을 확보해 올해 4월까지 대강당(466.62㎡)을 신축하고, 다목적관, 각실 내부와 외벽을 정비를 마쳤다.

각종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위축된 수련원의 운영 정상화 준비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장흥군청소년수련원은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장흥군 우드랜드에 위치해 입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후 각 학교의 수련회가 모두 취소 됐으나,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 후 숙박형

이 아닌 당일형으로 예약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련원은 안중근 의사를 모신 사당 '해동사'를 참배하고 수련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홍보하면서 각 학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동사에서 안중근 의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고, 펜백나무 숲 우드랜드에서 수련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하루 일정으로 구성됐다.

2013년 문을 연 장흥군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긍정적 사고, 도전정신, 자아존중, 사회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위한 제품 공공구매 교육 개최

30여명 대상 공공기관 우선 구매 담당자 이해 높여

강진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제도에 대한 호응도를 높이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진행된 것으로 강진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교육지원청 등 구매담당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강사는 강상구 전라남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장이 맡았다. 교육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 공공구매의 필요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소개, 전라남도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라남도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방법을 직접 시연해 교육생들의 집중력을 높였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가 활발해져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과 사회서비스가 확충되길 바란다"면서 "관내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많이 설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강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관내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